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08호 [루게 제23425호] 주체100(2011)년 4월 18일 (월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여러 나라에서 널리 보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자주위업의 승리를 위한 담보》를 로씨야의친선 및 협조발전협회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발행식이 7일 모스크바에서 진행되었다.
발행식에는 쏘련공산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친선 및 문화협조 로씨야협회, 로씨야의친선 및 협조발전협회, 과학원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로씨야의친선 및 협조발전협회 위원장 세묘노프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는 뜻깊은 태양절에 즈음하여 김일성동지의 로작을 출판하게 된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현 국제정치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로작에서 밝히신 김일성동지의 자주위업수행에 관한 사상리론이 얼마나 현명하고 정당한가에 대하

여 다시금 절감하게 하고있다.
오늘 조선인민이 김일성동지의 선군령도밑에 미제와 그 추종세력의 대조선적대적책동을 짓부시면서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당당히 행사하고있는 비결은 바로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시종일관 구현하고있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를 베네수엘라 간파라라출판사에서 최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메히프주체사상연구소에서 2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단행본의 머리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져있다.
조선 민족의 어버이이시며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온 겨레에게 통일의 기쁨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셨습니다.
주석께서는 한평생 불멸불후의 정력적인 사색과 명도로 민족자주위업, 조국통일위업을 이끌어오셨습니다.
김일성주석의 탄생 99돐을 기념하여 메히프주체사상연구소는 그의 고전적로작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출판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에서 《3. 조국적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를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 국제연합이 최근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본사기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제1573호 주체100(2011)년 4월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품질감독국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품질감독위원회로 함에 대하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품질감독국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품질감독위원회로 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대책을 세울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 양

우리 식 사회주의위력, 집단주의위력으로 총공세에 계속 박차를!

흥남가스화대상건설장에 차넘치는 경쟁열풍

흥남가스화대상건설장에 사회주의경쟁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저한 뜻을 높이는 심장마다에 받아안고 흥남가스화대상건설에 동원된 당원들과 건설자들은 지금 조선의 속도창조자답게 공사장마다에서 집단주의위력으로 공사속도를 높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경쟁운동은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켜 생산과 건설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키기 위한 집단적혁신운동입니다.》
경쟁속에 모습이 있고 경쟁속에 집단적혁신의 비결이 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한 현장지휘부원들이 사회주의경쟁운동의 불길게 세차게 지켜올리고있다.
현장지휘부원들은 대고조격전이 벌어지고있는 전투장소에 달려나가 건설자들속에

경쟁의 목적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시키는것과 함께 현장들에 사회주의경쟁도료와 직판물들을 기동적으로 전개하여놓고있는 화산석성적시사업을 드세게 벌리며 경쟁열풍을 고조시키고있다.
그러하여 가스화대상건설장에서는 변합기업소들간 사회주의경쟁, 돌격대간 사회주의경쟁, 직장별사회주의경쟁, 작업반별사회주의경쟁을 비롯한 각 부문별, 공정별에 따르는 사회주의경쟁들이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어 전투장 그 어디서나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사회주의경쟁의 열풍은 통성기계련합기업소에서 드세차게 일고있다.
우리 혁명의 년대기들마다에 자랑스러운 창조적 전통을 새겨온 통성기계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전투의 간고한 시련속에서 맨손으로 8m타원반과 3000t프레임을 만들던 그때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려 9만㎡원심공기압축기운전에

서 가장 절린 문제로 되고있던 압축기축이동유압수감부를 새롭게 개조함으로써 공사속도를 앞당기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리고 수십건의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받아들임으로써 많은 로력과 자재를 절약하고 국가에 큰 리득을 주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1년이 걸려야 한다던 응축분리탑, 탄산가스흡착탑을 비롯한 수많은 대상설비제작을 3개월 남짓한 기간에 끝냄으로써 공사의 전반적기일을 앞당기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사회주의경쟁열풍은 중요대상설비들의 제작을 맡은 설비조립련합기업소에도 뜨겁게 차넘치고있다.
설비조립련합기업소 건설자들은 지상화대식조립방법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설비조립속도를 높임으로써 공사기일을 앞당기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흥남비료련합기업소 건설자들이 조선의 속도창조자답게 다시 한번 건설에서 크게 이바지에도 합동산업건설사업

비약을 안아올 불같은 열의를 안고 사회주의경쟁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모든 단위들에서 《연판부론, 연판단위를 위하여》라는 정신으로 사회주의경쟁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게 세차게 타오르도록 하고있다.
련합기업소 보수사업소 1가공직장, 2가공직장 전투원들은 모든 작업이 연속공정으로 진행되는데 맞게 250종에 7000여점의 부속품가공을 선형사육이 다른 련합기업소 3페로야의 19개 대상장치를 제작과 조립을 끝내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단련광업건설련합기업소 건설자들속에서 사회주의경쟁열풍의 파도가 호불수록 고조되고있다. 용접공들의 사회주의경쟁, 용접기판리를 위한 사회주의경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고 건설의 속도와 질을 중점에 비해 훨씬 높이는 성과를 거두고있다.
이밖에도 합동산업건설사업

소, 화학건설련합기업소를 비롯한 건설에 동원된 모든 단위의 건설자들이 《천년을 책임지고 10년을 보충하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하나의 제판품, 하나의 건축물공사에도 순결한 애국의 마음을 바쳐가고있다.
현장지휘부에서는 사회주의경쟁이 활발히 진행되는데 맞게 그에 대한 평가사업도 실속있게 짜고들고있다. 평가기준을 바로 정하고 평가사업에서 정치적평가와 물질적평가를 옮겨 배합해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기능예술훈련원들과 지평해설강사들, 선동원들을 통하여 사회주의경쟁에서 발휘된 선진성들을 적극 소개전환함으로써 사회주의경쟁운동이 그대로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되도록 하고있다.
흥남가스화대상건설장에 세차게 불어치는 사회주의경쟁열풍은 이렇듯 날이 갈수록 그 전투적위력을 남김없이 파시하고있다.
본사기자 최영길

우리 자립경제의 위력

◇ 지금 최전 1호발전소건설은 완공의 시각을 눈앞에 두고있다.
최전 1호발전소, 몇달전에 이곳을 찾았던 일부 외국사람들도 2012년까지 과연 될것인가고 반신반반한 대상이다. 선군대고조는 이 의문부에 실물로 대답을 주고있다. 오늘 최전발전소건설은 전반적으로 마감단계에 있다.
최전발전소와 같이 매우 방대하고 긴박하게 진행되는 강력한 자립적민족경제가 없는 할수 없다. 이곳 현장지휘부원들의 말에 의하면 이 대상건설에 든 자재와 설비, 자원은 막대하다고 한다.
이런 거창한 창조와 건설이 지금 최전당에서만 아니라 온 나라 각지에서 벌어지고있다. 기념비적창조품의 건설뿐 아니라 생산공정과 설비의 현대화와 생산확대를 위한 모든 투쟁에서 세계적인 변혁이 이루어지고있다. 그러나 오늘의 대고조를 위한 힘은 우리의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의 잠재력은 얼마나 무궁무진한것인가.
◇ 우리 나라 자립경제의 무한한 위력은 자기의 고유한 요인으로 하여 분출되는 위력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에 마련되어있는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최전발전소건설을 찾는 사람마다 느끼는 두가지 사실이 있다. 하나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한시바삐 완공의 보고를 드리려는 군인건설

자들과 돌격대원들의 불같은 총정의 열기이며 다른 하나는 시간마다 늘어나는 가치대단한 기술혁신할수이다. 바로 여기에 10년이상 걸려야 할 대상건설을 3년안에 끝낼것을 결의한 배짱의 원천이 있고 오늘 최대로 단축했던 건설기일이 더욱 짧아지고있는 기적의 비결이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국가경제력은 단순히 몇개 지표의 수자로만 평가할수 없다. 개인주의와 황금만능주의 원리가 지배하는 자본주의경제와 달리 우리의 사회주의경제는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면 무한한 정진력을 지닌 인민, 현대과학기술의 적극적 활용자인 천만대중이 주인이 된 특이한 경제이다. 이러한 경제의 잠재력은 그 어떤 초대형컴퓨터로도 계산할수 없는 무한한것이며 언제나 세상이 놀라워하는 기적만을 창조하게 하는 원천이다.
◇ 오늘의 대고조전군은 우리의 자립경제의 우월성과 위력을 최상의 높이에서 떨치기 위한 영예로운 투쟁이다.
2012년까지 21세기 경제강국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기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은 매개 부문, 매개 단위에 명백한 투쟁목표를 내세우고있다. 이 투쟁목표는 우리들 자신의 행위를 위한 보람찬 과제이며 우리의 손으로 수행하여야 할 전투임무이다. 누구나 다 김철과 홍남의 로동계급적혁명의 반동들의 어지러운 불타는물결을 무조건 강하게, 무조건 건설의 장쾌한 승리로 불사르는 선군시대 대고조전군의 선구자, 위훈자가 되자.

온갖 꽃 만발한 도시로

사 리 원 시 에 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열렬한 향토애와 조국애를 지니고 자기 마을과 거리, 공장과 학교, 자기 공과 도를 알뜰하고 깨끗하게 꾸리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리원시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시를 온갖 꽃이 만발하는 도시로 꾸리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시에서는 지난해에 년간 수십만포기의 화초를 생산할수 있는 온실을 몇동까지 건설하였다. 이미 모든 거리를 장식할만 한 량의 꽃생산준비를 갖춘 시에서는 봄에 들어서면서서 꽃장식을 위한 화대건설과 화단조성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시당위원회에서는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 가두인민반원들이 시를 꽃이 만발한 도시로 꾸리는 사업을 단호히 거리와 마을을 장식하는 사업이 아니라 백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명도업적을 빛내기 위한 영예로운 사업으로 여기고 일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특히 이 사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키 모두가 자기 가정과 마을, 일터와 거리를 더 잘 꾸리는 일에 적극 참가하도록 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렸다.
뜻깊은 4월의 명절을 앞두고 시내의 중심거리에는 물론 여가처기에 화대들이 건설되고 이동식화대들이 설치되었으며 도로옆 옥지구역에 화단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졌다. 시당위원회와 시인민위원회를 비롯한 시급기관 일군들이 이 사업의 앞장에 섰다. 시당정사업소와 언덕원지 부를 비롯한 여러 단위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불타는 애국의 마음을 안고 떨쳐나섰다.
시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뜨거운 마음들이 떠날수록 이 사업이 시작되지 며칠 안되는 기간에 많은 고성 및 이동화대 건설과 설치작업이 끝났으며 꽃장식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태양절을 맞게는 근로자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사리원시는 날이 다르게 백화만발한 도시로서의 면모를 펼쳐보이고 있다.
특파기자 김천일



대고조전군의 불길함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더 많은 압연강판을 보내주기 위한 생산률적진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 김철제철련합기업소에서 - 김진명 찍음

조국강산에 넘치는 김일성민족의 긍지와 영광

뜻깊은 4월의 하루하루가 흐르고 있다.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러 러치는 인류의 다함없는 칭송의 목소리가 내 조국강산에 끝없이 메아리치고 천만군민의 가슴가슴은 태양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해돋는 바다마냥 설레이고 있다.

김일성민족! 조용히 그 이름 불러보면 우리 수령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어려와 누구나 눈굽을 뜨겁게 적신다. 세상에 나라와 민족은 많지만 자기 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나라, 위대한 민족은 그 어디에도 없다.

이에 대하여 생각할 때면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어버이수령님을 높이 모신 한없는 영광과 긍지를 새겨주시고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대 길이 빛내도록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고결한 총정의 세계가 가슴을 울린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수령님은 력사에 밀리지 있어본 적이 없는 위인중의 위인입니다.»**

어느때 여름날 밤이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군들과 함께 대성산으로 향하시었다.

장수봉의 정각앞에 이르러 차에서 내리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수도의 반경지를 이윽고 바라보시었다. 참으로 아름다운 수도의 밤이었다.

수도의 밤풍경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일군들에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금 우리는 조국의 유구한 력사에서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빛나는 시대에 살고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그러시고는 지금 외국의 많은 벗들이 조선에서 20세기의 기적 일어있다고 하면서 그 기적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자고 대륙과 대양을 넘어 우리 나라를 찾아 온다고 하시며 우리 국가를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우리 인민의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깊이 새겨야 한다고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어 어제 날 세계지도우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나라가 오늘은 온 세상에 그 위용을 떨치고있다고 강조하시

는 그이 어조는 감동에 젖어있었다. 계속하여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우리는 용당 민족적 긍지를 가져야 한다고, 우리의 민족적 긍지와 혁명적 자부심의 바탕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있는데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그제서야 일군들은 그이께서 한 밤중에 대성산의 장수봉에 오르신 것도 바로 이 불변의 신념을 일군들의 가슴속에, 우리 인민들의 심장마다에 철칙의 의지로 심어주시기 위해서임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뜻깊은 말씀을 새기는 일군들의 심장은 격렬한 사상과 명도로 조국명수에 위대한 전변의 력사를 창조해나가는 우리 수령님에 대한 호모우심으로 하여 세차게 울려퍼졌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광휘로운 빛발로 시대와 혁명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신 격렬한 사상적 리더,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을 개척하시고 총대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주시는 전설적영웅,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

력사상 처음으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시고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시는 격렬한 정치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

인민위원의 숭고한 리념을 지니시고 인민에 대한 가장 뜨거운 사랑과 헌신의 력사를 수놓으시는 참다운 인민의 수령, 자애로운 어버이,

참으로 동서고금의 력사에 위대한 수령님과 같이 우리 인민과 전민족의 사랑을 베풀어주시고 민족의 행복을 위하여 애쓰신 위대한 수령님을 목놓아 부르짖어 피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다. 인민의 비탄에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다.

력사에 류례없는 지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숭고한 도덕의리를 지니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지린과 단란을 앞장서서 헤치시며 우리 인민을 백절불굴의 정신력의 강자로 키우시었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실록의 갈피갈피를 우리는 결코 무심히 변질수 없다.

자주적인 위원이 되느냐, 계급주의 노예가 되느냐 하는 판가리결전에서 고난의 천리를 가만 행부의 민리가 온다는 승리의 심심드높이 우리 장군님께서 더욱 억세게 틀어

쥐신것은 무적이 총대였다. 그 나날 선군의 기치를 높이 추켜 드시고 우리 장군님께서 모진 강추위와 무더위, 눈보라와 무더기비를 헤치시며 찾으신 곳은 총잡은 병사들이 있는 전초기였다. 총대가 강해야 조국과 민족의 존엄도, 인민의 행복도 지킬수 있기에 전초기의 병사들을 찾아 끊임없는 전진시찰의 길을 이어가신 우리 장군님 아니시던가.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필승의 신심과 락관, 백절불굴의 공격정신과 창조정신, 강인담대한 의지와 배짱을 심어주시며 헤쳐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의 자욱을 우리 어찌 다 헤아릴수 있랴. 그 나날 조금이라도 휴식할것을 강권하는 일군들에게 조국이 준엄한 시련을 겪는 이 시각 우리가 어떻게 편안한 길을 택할수 있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며 더 정력적으로 사업하신 경애하는 그이시이다.

우리가 강행군의 앞장에 서야 오늘의 고난을 돌파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늘 인민들의 기쁨은 자신의 행복이라고, 인민들이 잘할 때 자신도 다에 사랑의 자욱을 새기시며 어버이수령님께서 끊임없이 이어가신 현지지도의 길과 그 얼마 이던가, 조국의 최북단으로부터 분지연선지구의 연백별에 이르키까지, 동해의 포구마을로부터 서해의 외진 등대섬에 이르기까지 어버이수령님께서 인민을 위해 수놓아진 불멸의 자욱자욱을 우리 어찌 잊을수 있랴.

하기에 천만뜻밖에 민족사상 최대의 국상을 당하였을 때 우리 인민은 어버이수령님을 목놓아 부르짖어 피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다. 인민의 비탄에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다.

력사에 류례없는 지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숭고한 도덕의리를 지니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지린과 단란을 앞장서서 헤치시며 우리 인민을 백절불굴의 정신력의 강자로 키우시었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실록의 갈피갈피를 우리는 결코 무심히 변질수 없다.

자주적인 위원이 되느냐, 계급주의 노예가 되느냐 하는 판가리결전에서 고난의 천리를 가만 행부의 민리가 온다는 승리의 심심드높이 우리 장군님께서 더욱 억세게 틀어

쥐신것은 무적이 총대였다. 그 나날 선군의 기치를 높이 추켜 드시고 우리 장군님께서 모진 강추위와 무더위, 눈보라와 무더기비를 헤치시며 찾으신 곳은 총잡은 병사들이 있는 전초기였다. 총대가 강해야 조국과 민족의 존엄도, 인민의 행복도 지킬수 있기에 전초기의 병사들을 찾아 끊임없는 전진시찰의 길을 이어가신 우리 장군님 아니시던가.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필승의 신심과 락관, 백절불굴의 공격정신과 창조정신, 강인담대한 의지와 배짱을 심어주시며 헤쳐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의 자욱을 우리 어찌 다 헤아릴수 있랴. 그 나날 조금이라도 휴식할것을 강권하는 일군들에게 조국이 준엄한 시련을 겪는 이 시각 우리가 어떻게 편안한 길을 택할수 있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며 더 정력적으로 사업하신 경애하는 그이시이다.

우리가 강행군의 앞장에 서야 오늘의 고난을 돌파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늘 인민들의 기쁨은 자신의 행복이라고, 인민들이 잘할 때 자신도 다에 사랑의 자욱을 새기시며 어버이수령님께서 끊임없이 이어가신 현지지도의 길과 그 얼마 이던가, 조국의 최북단으로부터 분지연선지구의 연백별에 이르키까지, 동해의 포구마을로부터 서해의 외진 등대섬에 이르기까지 어버이수령님께서 인민을 위해 수놓아진 불멸의 자욱자욱을 우리 어찌 잊을수 있랴.

하기에 천만뜻밖에 민족사상 최대의 국상을 당하였을 때 우리 인민은 어버이수령님을 목놓아 부르짖어 피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다. 인민의 비탄에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다.

력사에 류례없는 지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숭고한 도덕의리를 지니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지린과 단란을 앞장서서 헤치시며 우리 인민을 백절불굴의 정신력의 강자로 키우시었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실록의 갈피갈피를 우리는 결코 무심히 변질수 없다.

자주적인 위원이 되느냐, 계급주의 노예가 되느냐 하는 판가리결전에서 고난의 천리를 가만 행부의 민리가 온다는 승리의 심심드높이 우리 장군님께서 더욱 억세게 틀어

쥐신것은 무적이 총대였다. 그 나날 선군의 기치를 높이 추켜 드시고 우리 장군님께서 모진 강추위와 무더위, 눈보라와 무더기비를 헤치시며 찾으신 곳은 총잡은 병사들이 있는 전초기였다. 총대가 강해야 조국과 민족의 존엄도, 인민의 행복도 지킬수 있기에 전초기의 병사들을 찾아 끊임없는 전진시찰의 길을 이어가신 우리 장군님 아니시던가.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필승의 신심과 락관, 백절불굴의 공격정신과 창조정신, 강인담대한 의지와 배짱을 심어주시며 헤쳐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의 자욱을 우리 어찌 다 헤아릴수 있랴. 그 나날 조금이라도 휴식할것을 강권하는 일군들에게 조국이 준엄한 시련을 겪는 이 시각 우리가 어떻게 편안한 길을 택할수 있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며 더 정력적으로 사업하신 경애하는 그이시이다.

우리가 강행군의 앞장에 서야 오늘의 고난을 돌파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늘 인민들의 기쁨은 자신의 행복이라고, 인민들이 잘할 때 자신도 다에 사랑의 자욱을 새기시며 어버이수령님께서 끊임없이 이어가신 현지지도의 길과 그 얼마 이던가, 조국의 최북단으로부터 분지연선지구의 연백별에 이르키까지, 동해의 포구마을로부터 서해의 외진 등대섬에 이르기까지 어버이수령님께서 인민을 위해 수놓아진 불멸의 자욱자욱을 우리 어찌 잊을수 있랴.

하기에 천만뜻밖에 민족사상 최대의 국상을 당하였을 때 우리 인민은 어버이수령님을 목놓아 부르짖어 피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다. 인민의 비탄에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다.

력사에 류례없는 지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숭고한 도덕의리를 지니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지린과 단란을 앞장서서 헤치시며 우리 인민을 백절불굴의 정신력의 강자로 키우시었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실록의 갈피갈피를 우리는 결코 무심히 변질수 없다.

자주적인 위원이 되느냐, 계급주의 노예가 되느냐 하는 판가리결전에서 고난의 천리를 가만 행부의 민리가 온다는 승리의 심심드높이 우리 장군님께서 더욱 억세게 틀어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열린 김일성화축전에서는 태양칭송의 꽃바다가 펼쳐져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었다. 김일성민족의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슴 불태우며 이 나라 천만군민의 마음과 마음들이 끝없이 물결치는 축원의 꽃바다!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끝없는 숭모심이 그대로 꽃잎이 되고 그윽한 향기가 되어 더욱 만발하는 태양의 꽃 김일성화를 우러를수록 우리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만대대 영원히 빛내시려 바쳐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고결한 총정의 세계가 다시금 뜨겁게 되새겨진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의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높이 모신 절세의 위인이시며 우리 민족의 어버이이실뿐 아니라 온 세계가 공인하는 인류의 태양이십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에 있는 일이다.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한 일군을 부르시고 김일성화라는 꽃에 대하여 들은적이 있는가고 물으시었다.

일군은 의아해하며 머리를 기웃거리었다. 김일성화는 주제 54 (1965)년 4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반동회의 10대 기념행사에 참석하시기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시었을 때 그 나라 대통령 어버이수령님께 선물로 올린 꽃이었는대 뜻하지 않은 일로 그 꽃을 연구한 식물학자들과 꽃이 행처불멸이 되어 당시까지는 김일성화에 대하여 알고있는 사람이 몇명 되지 않았던 것이다.

일군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적이 없다는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김일성화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시면서 그 꽃을 찾을때 대한 과업을 주시었다.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을 받아 안은 일군들과 인도네시아주제 우리 나라 대사관성원들은 김일성화 불멸의 꽃은 온 나라에 더욱 만발하게 행하는 묘연해지기만 하였다.

이러한 때 일군들을 몸가짜이 불러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식물학자들의 행방을 모르는 형편에서 김일성화를 찾는다는것은 물론 간단하지 않을것이다. 그 나라 인민들은 우리 수령님에 대한 존경과 호모의 정을 고이 간직하고있다. 그 나라가 뜻하지 않게 수난을 겪었지만 식물원원장 과 원에서는 어디에선가 김일성화를 계속 피우고있을것이라고 하시며 그들에게 크나큰 힘과 고무를 안겨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에서 용기를 얻은 일군들은 김일성화를 찾기 위한 사업을 더욱 진공적으로 벌려나갔다.

고심하던 노력끝에 일군들은 인도네시아의 수도에서 수백리 떨어진 곳에서 김일성화를 찾아내게 되었다. 이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매우 만족해하시며 일군들에게 수령님께서 그 꽃을 보시게 되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고, 김일성화를 빨리 가져다 피워야 하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사연도 깊은 김일성화가 우리 조국에 도착하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바쁘신 일도 다 뒤로 미루시고 꽃을 보아주시었다.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세계 진보적인류의 뜨거운 호모의 정이 깃들여있는 불멸의 꽃을 오래도록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일군들에게 김일성화가 출다고 하신 그 꽃이 출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김일성화는 단순히 자연의 꽃이 아니라 만민에게 주체의 해방을 안겨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을 상징하는 자주시대의 꽃이고 인류의 념원속에 피어난 총정의 꽃이며 우리 인민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하는 민족정신과 자부심을 안겨주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해 한물

바쳐 싸울 각오를 더욱 굳게 다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김일성화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시면서 그 꽃을 찾을때 대한 과업을 주시었다.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을 받아 안은 일군들과 인도네시아주제 우리 나라 대사관성원들은 김일성화 불멸의 꽃은 온 나라에 더욱 만발하게 행하는 묘연해지기만 하였다.

일군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적이 없다는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김일성화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시면서 그 꽃을 찾을때 대한 과업을 주시었다.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을 받아 안은 일군들과 인도네시아주제 우리 나라 대사관성원들은 김일성화 불멸의 꽃은 온 나라에 더욱 만발하게 행하는 묘연해지기만 하였다.

일군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적이 없다는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김일성화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시면서 그 꽃을 찾을때 대한 과업을 주시었다.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을 받아 안은 일군들과 인도네시아주제 우리 나라 대사관성원들은 김일성화 불멸의 꽃은 온 나라에 더욱 만발하게 행하는 묘연해지기만 하였다.

일군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적이 없다는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김일성화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시면서 그 꽃을 찾을때 대한 과업을 주시었다.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을 받아 안은 일군들과 인도네시아주제 우리 나라 대사관성원들은 김일성화 불멸의 꽃은 온 나라에 더욱 만발하게 행하는 묘연해지기만 하였다.

일군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적이 없다는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김일성화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시면서 그 꽃을 찾을때 대한 과업을 주시었다.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을 받아 안은 일군들과 인도네시아주제 우리 나라 대사관성원들은 김일성화 불멸의 꽃은 온 나라에 더욱 만발하게 행하는 묘연해지기만 하였다.

일군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적이 없다는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김일성화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시면서 그 꽃을 찾을때 대한 과업을 주시었다.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을 받아 안은 일군들과 인도네시아주제 우리 나라 대사관성원들은 김일성화 불멸의 꽃은 온 나라에 더욱 만발하게 행하는 묘연해지기만 하였다.

일군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적이 없다는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김일성화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시면서 그 꽃을 찾을때 대한 과업을 주시었다.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을 받아 안은 일군들과 인도네시아주제 우리 나라 대사관성원들은 김일성화 불멸의 꽃은 온 나라에 더욱 만발하게 행하는 묘연해지기만 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여러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디마스끄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 각하

나는 수리아독립 65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친선적인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감정된 불만과 회의를 되찾고 중동문제를 공정하고 포괄적으로 해결하며 나라의 발전과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당신과 수리아아랍인민의 노력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 100 (2011)년 4월 16일 평양

하라 레

짐바브웨공화국 대통령
로버트 지 무가베 각하

나는 짐바브웨공화국창건 31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훌륭한 친선협조관계가 끊임없이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자주적발전과 번영을 위한 당신과 귀국인민의 노력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 100 (2011)년 4월 17일 평양

4월의 명절과 더불어 전해지는 이야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친 어버이수령님의 생애를 회고하는 뜻깊은 4월의 명절과 더불어 전해지는 가슴뜨거운 이야기들이 그 얼마나지 모른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떡방아 있어서 우리 수령님과 대비할수 있는 위인은 력사에 없었습니다.»

주제 61 (1972)년 4월 어느날 어버이수령님의 집 무릎에 향일혁명투사들이 찾아왔다.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60돐을 맞으며 진행하게 될 국가적인 행사와 관련한 문제들 때문이었다.

이무렵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에 따라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60돐을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로 성대히 기념할것을 결정하고 그 준비사업을 다

그치고있었다. 당과 국가의 일군들과 항일혁명투사들로 조직된 행사준비위원회에서는 뜻깊은 4월의 명절과 관련한 국가적인 행사 계획들을 세우고 그에 대하여 어버이수령님께 여러 기회에 말씀드리었다.

그때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엄하게 만류하시었다.

«그리하여 행사준비위원회에서는 진지한 토론끝에 이날 항일혁명투사들을 보내어 어버이수령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였던것이다.»

투사들로부터 찾아온 사연을 다 들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동무들의 심정을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동무들이 진정으로 나를 위한다면 아무쪼록 그러지 말아주오, 나는 그것을 바라지 않소, 그저 그날을 조용히 지내도록 해주면 고맙겠소, 그것이 나를 생각해주시고 나를 도와주는것이요라고 말씀하시었다. 벌써 몇번째나 하시는 말씀이었다.

그동안 행사준비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일을

하지만 로투사들은 쉽게 물러설 생각을 하지 않고 어버이수령님께 4월의 명절을 뜻깊게 경축하는것은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이며 념원있것만큼 이번만은 인민들의 소원을 꼭 들어주셨으면 한다고 간절히 말씀드리었다.

반안에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윽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동무들이 정 그러면 그날 기념으로 함께 사건이 짜자고 하시며 이번엔 4월 25일을 더 크게 기념하여야 한다고, 우리 혁명투사들이 탄생날인 4.25행사준비를 잘하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뜻깊은 4월의 명절을 하루 앞둔 날이었다.

한 일군이 어버이수령님께 다음날의 일정을 알려드리면서 기념행사와 경축연회를 하 있다는것을 말씀드리었다. 그동안 행사준비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일을

추하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를 공식친선방문한 외국국가수반도 있기때문에 대외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경축연회만은 준비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일군으로부터 일적계획을 들으시고 장부를 이윽고 바라보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벌써 예순이란 말이오, 참 세월이 빨리가 갔소,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라고 조용히 뇌이시었다. 순간 일군의 가슴은 세찬 격정으로 설레이었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그날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장 수십상상 오로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

조국과 인민, 인류와 력사앞에 그처럼 위대한 업적을 쌓으시고도 아직 할 일이 많다고 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러보는 일군의 눈굽은 뜨겁게 젖어 들었다. 드디어 민족최대의 경사의 날

이 왔다. 뜻깊은 이날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60돐을 축하하여 성대한 연회가 진행되었다. 연회에서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의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어버이수령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하시었다.

이윽고 연락앞으로 나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지나온 나날들을 감회없이 돌이켜보시며 혁명적동지애와 단결이야말로 우리 혁명의 모든 승리의 담보이라는 고귀한 진리를 연회참가자들의 가슴속에 새겨주시었다.

지금으로부터 39년전 4월의 명절은 이렇게 흘러갔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날의 가슴뜨거운 사연을 언제나 심장깊이 새기고 뜻깊은 태양절을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로 영원히 기념할것이며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념원과 이상을 이 땅우에 더욱 활짝 꽃피워나갈것이다.

본사기자 김 용 진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으로 잠 못 드는 수도의 밤

김철우 찍음

간곡한 당부

한평생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친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생애의 갈피에는 우리 일군들을 참다운 인민의 총부키 되도록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주신 가슴뜨거운 이야기 있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는 숭고한 덕성을 지니신 진정한 인민의 수령이십니다.»

언제인가 어버이수령님께서 당, 행정경제기관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회회에 일군들이 인민의 총부키 위해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것은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우리 일군들의 숭고한 사명이요 라고 하시면서 일군들이 자기의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면 인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며 그렇게 되면

당과 인민대중의 관계도 더 두터워지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마지막으로 인민에 대한 헌신적부무정신이 뜨겁게 넘쳐나는 말씀이었다.

숙요한 격정에 잠겨있는 일군들을 믿음어린 눈길로 바라보시며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최근에 당에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내놓았는데 이 구호에는 당과 대중의 혈연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려는 당의 의도와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우리 일군들이 당의 이 구호를 사업과 생활의 좌우명으로 삼고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일하여야 한다고 뜨겁게 강조하시었다.

어버이수령님의 말씀을 받아 안으며 일군들은 그이의 숭고한 뜻을 심장에 새기고 인민의 참다운 총부키로 한생을 빛내어갈 불타는 맹세를 굳게 다지

장정현

대중적설비관리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시키자

모범기대창조운동의 생활력 힘있게 과시

인민생활대고조진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26호모범기대창조운동을 더욱 활발히 벌려나갈수록 생활력과 위력을 높이 발휘하고있다.

이 운동의 거대한 불길속에서 118만 5 000여대의 기계설비들이 26호모범기대, 2중, 3중 26호모범기대로, 11만 3 900여개의 작업반과 1만여개의 직장, 1만 1 800여개의 공장, 기업소가 26호모범단위, 2중, 3중 26호모범단위로 되었다. 그리고 890여개의 직장과 1 600여개의 공장, 기업소들이 26호모범기대예상을, 90여개의 직장과 10여개의 공장, 기업소들이 2중 26호모범기대예상을, 100여대의 기계설비들이 26호모범기대예상, 2중 26호모범기대예상, 2중 26호모범기대예상을 수행하고있다.

수행과 강성대국건설업무를 적극 추동하는 대중운동으로서 오늘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생산공정과 기계설비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높은 단계의 대중적설비관리운동으로 확대발전되고있다.

평양방직기계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언제나 경애하는 장군님을 자기들의 일터에 모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던 그날의 영광속에 살며 투쟁하고있다. 공장의 로동계급은 26호모범단위 자기들의 량심과 일본색을 비추어보면서 생산공정과 기계설비들의 현대화를 다그치고 공장전반을 사회주의 선진으로 일신시켜나가는 데서 본보기가 되어 전국적으로 벤치마크로 2중 26호모범기대예상창조를 행하고있다.

안목으로 사상전, 두뇌전, 기술전을 힘있게 벌려 공장을 지식경제시대의 표본공장으로 전변시키었다.

선진제강련합기업소와 기계제작련합기업소에서는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과 자원으로 주체철생산체계를 완성하고 그 운명을 정상화하고있으며 2. 8비날론련합기업소,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서도 화학공업의 최첨단공지를 점령하는 투쟁의 앞장에 섰다.

김정숙평양사공장, 평양곡산공장, 평양방직공장, 평양화장품공장, 장자산종합식료공장, 창성식료공장을 비롯한 전국의 수많은 경공업공장과 지방공업공장에서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본원엔 비롯한 과학연구기관들과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들, 조선적십자종합병원과 평안남도산림, 평안남도구양병예방원을 비롯한 보건기관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 모든 단위가 모범기대창조운동을 힘있게 벌려 당의 웅대한 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가고있다.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26호모범기대창조운동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공고히 하면서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이 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나갈 결의에 넘쳐 힘차게 전진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대중적설비관리운동의 불길에 지퍼수선사의 그날로부터 50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 날 26호선반을 따라배우는 총성기대창조운동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투쟁을 적극 추동하고 자립경제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데서 획기적인 전변을 가져왔으며 남이 갈수록 생활력과 위력이 높이 발휘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대중운동을 잘 조직하고 힘있게 벌리면 우리애는 나쁜 혁명파도 아무리 반대하고 어렵다 하여도 그것을 얼마든지 수행할수 있다.》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다. 지식경제시대인 오늘에는 생산공정과 기계설비들의 현대화수준을 더욱 높일것을 요구한다.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26호모범기대창조운동을 심화발전시키자면 무엇보다도 모든 부문에서 자기 단위의 특성에 맞게 설비현대화 실현의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대중의 창의적발견을 최대한 발양시켜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산군시대의 본보기로 내세워 주신 단위들의 경험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우리의 자천과 기술에 의거하는 주체철생산체계를 확립한 김철과 성강의 로동계급, 주체섬유, 주체비료생산에서 투쟁훈을 부른 2. 8비날론련합기업소와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더 높고, 더 빨리 전진할 때쯤으로 목표를 높이 세우고 생산공정과 설비들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에

정비화하는 장군님의 현저발달을 빛나게 판별하였다.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우리의 식의 시공방법을 받아들이는 한편 대형자동차를 비롯한 기계설비들의 기술적성능과 리용률을 최대한 높여 웅근한 대개의 경지면적과 맞먹는 단계간척지를 선진시대의 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세웠다.

순천지수청년탄광련합기업소 2. 8직동청년탄광에서는 방대한 구간에 대한 벨트콘베어화를 실현하고 석탄생산에 필요한 각종 부속품들을 자체로 생산할수 있는 현대적인 공구동력기기를 비롯하여 자력갱생기기를 비롯한 기구, 예비부속품과 공구들을 일식으로 갖추어 석탄생산은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있다.

백두산혁명전적지 사도관리소와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수봉발전소, 광재배아령공장, 평양326전선공장, 운산공구공장, 신의주담공장, 황주군중기계작업소를 비롯한 수많은 공장, 기업소에서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개선하고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

서 자랑한 성과를 거두고있다. 모든 공장, 기업소의 로동계급은 이룩한 현대화의 목표를 높이 세우고 하나하나 모가 나게 수행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혁신적인 안목과 진취적인 일본색으로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설비관리운동의 목표를 높이 세우는데 기초하여 대담하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나가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근로자들이 그 어떤 현대적인 설비들도 능숙하게 다룰수 있게 기술기능수준을 끊임없이 높이고 노력하여야 한다.

현대적인 기계설비를 갖추는것만으로는 설비의 현대화를 높은 단계에서 실현하였다고 말할수 없다. CNC기술의 배편을 취고 온 나라에 현대화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킨 최첨단기계종합공장과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락원기계련합기업소를 비롯한 모범적인 공장, 기업소들의 경험은 기대를 다루는 조종공, 운전공들이 높은 과학기술을 소유할 때 현대화에서도 보다 큰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기술학습의 날과 설비점검검열의 날을 실속있게 운영하고 과학기술추진, 과학기술발표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이 사업을 끈기있게 내밀어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이 운동을 유해한것은 기정사실이고 밀접히 결부하여 더욱 심화발전시키는데서 조종공, 운전공, 근로단체조직들의 역할을 높여나감으로써 당조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26호모범기대창조운동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번지게 하여야 한다.

정비화하는 장군님의 현저발달을 빛나게 판별하였다.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우리의 식의 시공방법을 받아들이는 한편 대형자동차를 비롯한 기계설비들의 기술적성능과 리용률을 최대한 높여 웅근한 대개의 경지면적과 맞먹는 단계간척지를 선진시대의 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세웠다.

순천지수청년탄광련합기업소 2. 8직동청년탄광에서는 방대한 구간에 대한 벨트콘베어화를 실현하고 석탄생산에 필요한 각종 부속품들을 자체로 생산할수 있는 현대적인 공구동력기기를 비롯하여 자력갱생기기를 비롯한 기구, 예비부속품과 공구들을 일식으로 갖추어 석탄생산은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있다.

백두산혁명전적지 사도관리소와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수봉발전소, 광재배아령공장, 평양326전선공장, 운산공구공장, 신의주담공장, 황주군중기계작업소를 비롯한 수많은 공장, 기업소에서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개선하고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범기대창조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모범기대작업반, 모범기대직장, 모범기대공장대렬을 끊임없이 늘려나가야 하겠다.》

26호모범기대창조운동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범기대창조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모범기대작업반, 모범기대직장, 모범기대공장대렬을 끊임없이 늘려나가야 하겠다.》

26호모범기대창조운동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범기대창조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모범기대작업반, 모범기대직장, 모범기대공장대렬을 끊임없이 늘려나가야 하겠다.》

26호모범기대창조운동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범기대창조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모범기대작업반, 모범기대직장, 모범기대공장대렬을 끊임없이 늘려나가야 하겠다.》

26호모범기대창조운동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범기대창조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모범기대작업반, 모범기대직장, 모범기대공장대렬을 끊임없이 늘려나가야 하겠다.》

26호모범기대창조운동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범기대창조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모범기대작업반, 모범기대직장, 모범기대공장대렬을 끊임없이 늘려나가야 하겠다.》

26호모범기대창조운동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범기대창조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모범기대작업반, 모범기대직장, 모범기대공장대렬을 끊임없이 늘려나가야 하겠다.》

26호모범기대창조운동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범기대창조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모범기대작업반, 모범기대직장, 모범기대공장대렬을 끊임없이 늘려나가야 하겠다.》

26호모범기대창조운동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

설비들의 현대화에 중점을 두고

평양방직기계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생산설비들의 현대화에 중점을 두고 26호선반을 따라배우는 총성의 모범기대창조운동을 심화시켜 좋은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하여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밀고나가야 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50년전 그 날애 이 공장 공구작업의 26호선반을 돌리면서 시 몸소 설비관리의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셨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로동자들의 기쁨은 손을 잡아주시며 설비를 사랑한다는것은 곧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의 발현이라고, 설비를 늘 애호하고 잘 거두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언제나 가슴깊이 새기고 대중적설비관리운동의 앞장서서 힘있게 달려왔다.

지금 공장에서는 공구직장과 기계가공 1직장의 설비들을 CNC화하기 위한 사업을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공장의 일군들은 현대화가 본격적으로 벌어지고있는 현장에 들어가 로동자, 기술자들에게 당의 과학기술중시노선의 정당성을 깊이 인식시켜주는 한편 절린 문제들을 기동적으로 풀어주고있다. 기사장을 비롯한 공장장부일군들은 현대화추진정형을 매일 로해하고 총화하는 한편 기술력량을 강화하는 문제에 대한 관심을 돌리니 사업이 공작적인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하고있다.

설비들의 CNC화를 실현하는 데서 국가과학원 조종기계연구소의 연구사들과 평양기계대학교원, 연구사들이 큰 힘을 맡아 해결하고있다. 이들은 공장에 달려와 설비들을 갱신하는 데서 어려운 어렵고 복잡한 기술적문제들을 우리 식으로 현명히 해결하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바치고있다.

공장의 기술사들과 로동자들이 모두가 모범기대창조운동의 목표를 높이 내세우고 설비현대

화사업에 뛰어들어 한문씩 해결하고있다.

공구직장에서는 기능공들과 창고고안명수들로 기술력량을 꾸리고 설비조립과 가공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집체적지혜로 풀어나가는 한편 현장조건에 맞지 않는 설비들을 자체로 개조하고있다. 직장의 로동자, 기술사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치고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면서 기계를 현대화하는데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기술적 문제들을 파헤쳐 해결해나간다. 기계2작업반 반장 한영남, 기계1작업반 선반공 리상화동무들은 높은 기술기능수준으로 CNC기계부속품들의 정밀도를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설비조립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현대화여가는 설비들마다에는 3대혁명소조원들의 숨은 노력도 깰어주고 있다. 이들은 직장의 오랜 기능공들과 창조적지혜를 합쳐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가고있다.

공장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힘찬 투쟁에 의해 여러 설비들의 CNC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고있다. 설비들의 현대화가 적극 추진되어 지난 시기 만능기계로서는 가공하기 힘들던 부속품들도 쉽게 가공할뿐 아니라 그 가공정밀도를 높은 수준으로 보장할수 있게 되었다.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사, 로동자들은 생산을 밀고나가면서 유연창대기기를 현대적으로 갱신하는 사업도 근기있게 내밀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이들은 원추치차에 의한 전동장치제를 파내에 의한 장치로 바꾸어 생산성을 지난 시기보다 높이고, 직기의 수명을 늘렸을뿐만 아니라 소음을 극력 낮추어 로동조건보장에도 크게 이바지할수 있게 하였다. 또한 가공설비들이 현대화된 조건에 맞게 회전수가 높고 성능이 좋은 새형의 수가를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 계획생산에 들어갈수 있는 충분한 기술적조건을 마련해놓았다.

공장에서는 공구직장과 기계가공 1직장의 정밀도를 모든 직장에 일관화하기 위한 투쟁을 활발히 벌려나가고있다.

이 일을 계기로 공장에서는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어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메성강 6호발전소에서-

농장관리를 이렇게 짜고드니 얼마나 좋은가

최근년간 신의주시 3대혁명붉은기 석하협동농장에서는 주체농법의 요소를 철저히 관철하고 경영활동을 잘하여 농업생산에서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농장이 지난 10여년동안 자체로 농사를 지어 알곡생산에서 전국의 앞장에 서게 된 때는 이력 관리위원장 김문속동무의 노력이 크게 깰어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협동농장규약을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농장관리와 경영활동은 바로할수 없으며 농장원들의 열의를 높일수 없고 농업생산을 늘일수 없다.》

최우선시한 분조관리제 실시

관리위원장사업을 하는 전기간 김문속동무가 최우선시한것은 분조관리제를 올바르게 실시하는것이였다.

11월전 1월 김문속동무가 관리위원장사업을 시작한 당시 농장의 알곡생산수준은 시의 면 뒤처리에 놓여있었다. 물론 지명그래도 많이 많아 물론도 전부 돌산인데다가 도시주변에 포진되어 널려있어 농사조건은 불리하였다.

《첫해부터 웅근수출을 내자면 무엇보다 해야 하겠는가?》 사실 고향망인 락원협동농장이 처녀시절에 청년분조장을 거쳐 작업반장, 관리위원장사업을 해오던 날애에 제일 앞선 단위로 만들어 소문을 들었던 것이지만 당황해나지 않을수 없었다. 하지만 그때 농장을 맡겨준 당의 크나큰 믿음에 기어코 보답할 맹세로 불려 그의 심장은 절세의 위인들의 고전적로작들을 찾아 그 문제 해결의 열쇠를 찾아야 한다고 말해주고있었다. 그는 즉시

신의주시 3대혁명붉은기 석하협동농장 관리위원장 김문속동무의 사업에서

의 신망이 있는 핵심요를 꾸려진 분조장들을 조직시키는데 있었다. 이것은 분조장으로 하여금 분조의 모든 실태를 한눈에 꿰뚫어 보게 하고, 또한 분조장들이 현장을 나가서 직접 행해나갔었다. 우선 분조장들을 위한 강습을 조직하고 자신이 강사로 출현하였다. 그리고 일군들이 작업반을 담당하고 내려가 분조관리제의 우월성을 발양시키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것을 깊이 해설해 주도록 하였다.

동시에 분조규모를 바로 정하는 사업을 내밀었다. 그는 일군들과 함께 현지를 밟으면서 수습계 분조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로해하고 도시주변에 포진되어 널려있는 지대적특성, 포진과 마을사이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알맞출현 면적의 토지와 로력으로 분조가 구성되게 하였다. 또한 논물관리와 비료시비를 한사람이 맡아 하게 한것을 비롯하여 노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대책도 세워주었다. 그리하여 분조규모가 일률적으로가 아니라 실정에 맞게 정해지게 되었다.

그 결과는 참으로 좋았다. 우선 분조원들로서가 잘 알고 깊이 리해하면서 더욱 확고하게 조율된 마음으로 단합되게 되었다. 또한 분조장이 분조를 관리하기 편 리해하면서 더욱 확고하게 조율된 마음으로 단합되게 되었다. 또한 분조장이 분조를 관리하기 편 리해하면서 더욱 확고하게 조율된 마음으로 단합되게 되었다.

농장관리를 이렇게 짜고드니 얼마나 좋은가

의 신망이 있는 핵심요를 꾸려진 분조장들을 조직시키는데 있었다. 이것은 분조장으로 하여금 분조의 모든 실태를 한눈에 꿰뚫어 보게 하고, 또한 분조장들이 현장을 나가서 직접 행해나갔었다. 우선 분조장들을 위한 강습을 조직하고 자신이 강사로 출현하였다. 그리고 일군들이 작업반을 담당하고 내려가 분조관리제의 우월성을 발양시키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것을 깊이 해설해 주도록 하였다.

동시에 분조규모를 바로 정하는 사업을 내밀었다. 그는 일군들과 함께 현지를 밟으면서 수습계 분조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로해하고 도시주변에 포진되어 널려있는 지대적특성, 포진과 마을사이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알맞출현 면적의 토지와 로력으로 분조가 구성되게 하였다. 또한 논물관리와 비료시비를 한사람이 맡아 하게 한것을 비롯하여 노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대책도 세워주었다. 그리하여 분조규모가 일률적으로가 아니라 실정에 맞게 정해지게 되었다.

그 결과는 참으로 좋았다. 우선 분조원들로서가 잘 알고 깊이 리해하면서 더욱 확고하게 조율된 마음으로 단합되게 되었다. 또한 분조장이 분조를 관리하기 편 리해하면서 더욱 확고하게 조율된 마음으로 단합되게 되었다.

농장관리를 이렇게 짜고드니 얼마나 좋은가

의 신망이 있는 핵심요를 꾸려진 분조장들을 조직시키는데 있었다. 이것은 분조장으로 하여금 분조의 모든 실태를 한눈에 꿰뚫어 보게 하고, 또한 분조장들이 현장을 나가서 직접 행해나갔었다. 우선 분조장들을 위한 강습을 조직하고 자신이 강사로 출현하였다. 그리고 일군들이 작업반을 담당하고 내려가 분조관리제의 우월성을 발양시키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것을 깊이 해설해 주도록 하였다.

동시에 분조규모를 바로 정하는 사업을 내밀었다. 그는 일군들과 함께 현지를 밟으면서 수습계 분조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로해하고 도시주변에 포진되어 널려있는 지대적특성, 포진과 마을사이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알맞출현 면적의 토지와 로력으로 분조가 구성되게 하였다. 또한 논물관리와 비료시비를 한사람이 맡아 하게 한것을 비롯하여 노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대책도 세워주었다. 그리하여 분조규모가 일률적으로가 아니라 실정에 맞게 정해지게 되었다.

그 결과는 참으로 좋았다. 우선 분조원들로서가 잘 알고 깊이 리해하면서 더욱 확고하게 조율된 마음으로 단합되게 되었다. 또한 분조장이 분조를 관리하기 편 리해하면서 더욱 확고하게 조율된 마음으로 단합되게 되었다.

소홀히 할수 없는 일

원산통신케블공장에서

《생산준비를 빈틈없이 하면서 특히 설비보수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겠다.》

원산작업반장은 지배인의 이야기를 다시금 새겨보며 생산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 생산에서부터 실적을 올릴것을 결심하였다.

작업반의 초급일군들은 아무리 생산이 긴장하여도 설비정비보수를 앞당기지 하였다.

이 일을 계기로 공장에서는

원산작업반을 본보기단위로 정하고 다른 작업반들에게 그 모범을 적극 따라배우도록 조직 사업을 짜고들었다. 그랬더니 좋은 조건에서 공장의 전진적인 생산이 그전보다 훨씬 높아져 1. 4분기 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완수할수 있었다. 생산과정에 작용하는 생산의 계소들을 틀어쥐고 기업관리를 짜고드는 김법관동무를 비롯한 이곳 일군들의 주도세밀한 일본색은 본받을만 한것이다.

본사기자 전성삼

원산작업반을 본보기단위로 정하고 다른 작업반들에게 그 모범을 적극 따라배우도록 조직 사업을 짜고들었다. 그랬더니 좋은 조건에서 공장의 전진적인 생산이 그전보다 훨씬 높아져 1. 4분기 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완수할수 있었다. 생산과정에 작용하는 생산의 계소들을 틀어쥐고 기업관리를 짜고드는 김법관동무를 비롯한 이곳 일군들의 주도세밀한 일본색은 본받을만 한것이다.

본사기자 전성삼

원산작업반을 본보기단위로 정하고 다른 작업반들에게 그 모범을 적극 따라배우도록 조직 사업을 짜고들었다. 그랬더니 좋은 조건에서 공장의 전진적인 생산이 그전보다 훨씬 높아져 1. 4분기 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완수할수 있었다. 생산과정에 작용하는 생산의 계소들을 틀어쥐고 기업관리를 짜고드는 김법관동무를 비롯한 이곳 일군들의 주도세밀한 일본색은 본받을만 한것이다.

본사기자 전성삼

4월의 봄명절과 더불어 태양의 노래, 친선의 노래는 영원하리

주제 조선의 해외공민권 크 나 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태양청송의 봄 축전무대를 뜻깊게 장식해 온 제일조선인에 올랐.

어느덧 스물일곱살의 년륜을 새기게 되는 뜻깊은 올해의 봄축전에 참가한 제일동포예술인들의 심정은 참으로 류다다.

그들이 이번 축전무대에 올린 서장 《축원의 한마음》, 장세 남독주 《우리 자랑 이만저만 아니랴》, 동무 《사랑의 치마 저고리》, 동무 《세계를 향하여》 등 작품들에 절제위인들을 그리고 따르며 언제나 조국과 슬결을 같이해갈 제일동포들의 불타는 충정과 열의가 격렬히 비추어졌다.

불타는 신념과 충정을 담아

재일조선인 예술단 예술인들

힘든 대지진과 해일로 인해 제일 동포들도 커다란 인적 및 물질적 손실을 입었다.

하지만 기쁨과 슬픔,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서로 돕는 훌륭한 기풍을 가지고있는 총련조직과 동포들은 흑심한 자연재해를 가시기 위한 루쟁을 과감히 벌 리었다.

뜻밖의 재난으로 불행을 당한 피해지역 동포들을 돕기 위한 루쟁의 앞장서는 바로 20대, 30대의 젊은 세대들이 서있었다. 이번 축전에 참가한 제일 조선인예술단 배우들도 이들과 한마음한 뜻이 되어 슬결을 같이 하였다.

《이번 대지진과 해일피해로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일가친척들도 생활의 지반을 모두 잃었습니다. 게다가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환경이 오염되고 교통은 수가 마비되었으며 먹는물마저 떨어져 혼란조차 하기 힘든 속에서도 누구 하나 동요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총과 노래로 지진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비롯하여 우리 동포들에게 힘을 주었으며 꼭 조국의 품에 안겨 이번 축전에 뜻깊게 장식하려는 오직 하나의 생각으로 마음을 불태웠습니다.》

이렇게 서두를 땀 금강산가극단 2.16 예술상수상자, 공훈배우이며 안무자인 강수내 동무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여올랐다.

그의 강인한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도 저이 격동되어 갔다.

계속하여 그는 우리 장군님께서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불변불후의 초강도강행군을 이어 가시는 속에서도 이번 대지진으로 동포들이 막심한 피해를 입은데 대하여 못내 가슴아파 하시며 거역의 위문금을 보내 주신데 대해 격정을 금치 못하면서 송고한 동포애가 어렸는 그 위문금은 단합된 힘으로 지진피해후과를 하루빨리 가시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는 금강산가극단의 전체 예술인들과 동포들에게 커다란 고무적힘을 안겨 주었다고 이야기하였다.

하기에 이들은 교육원조비와 장학금도 안겨주시고 제일동포들을 한몸에 안아 생활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따듯이 보살펴 주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해가 갈수록 더해만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을 심장으로 절감하며 축전준비에 불타는 창조적열정을 다 바치겠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자기들이 마련한 총과 노래로 동포들을 위한 위문공연을 진행하는 한편 밤도 축전의 성과적보장을 위해 왕성한 창작적의욕을 안고 공연준비사업에 박차를 가하였다.

남자들은 《동지애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갔다.

《동지애의 노래》, 이 노래에는 참으로 감동깊은 이야기가 깃들여 있었다. 언제나 거역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총련인들과 재일조선인예술단 성원들을 만나주신 자리에서 우리 함께 《동지애의 노래》를 부르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뜻깊은 그날에 울려 퍼진 《동지애의 노래》는 경애하는 장군님 따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애국의 한결을 꿋꿋이 걸어나가려는 총련인들과 동포들의 불타는 신념과 충정의 분출이었다.

제일동포모두의 이렇듯 열렬한 사랑을 그대로 무대에 펼쳐보인것으로 하여 공연은 관객들에게 그토록 큰 감동을 줄수 있었던것이다.

공연을 끝마치고 우리와 만난 제일조선인 예술단 단장인 김철동무는 말

* 세계일류급의 예술축전 *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은 날이 갈수록 모든 면에서 가장 완벽한 세계적인 예술축전으로 발전하고있다.

축전사에 27번째의 년륜을 새기는 이번 축전은 해당 나라를 당당히 대표할수 있는 민족극가의 모든 민족무용들을 다 포괄하고있는 제능있는 민족무용단이다.

사발썩기에 참가한 중국교배 배우들의 기량은 대단히 높으며 이 중목은 여러 교배 축전들에서 여러차례나 금상을 수여받은 독점종목이다.

로시야의 대표적인 발레단의 하나인 모스크바교전발레단과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명배우들을 가지고있는 모스크바 대극장명배우단, 국내인민들로

이더 이룩있는 저위자를 가지고있는 예술단체이다.

중화의 꽃으로 불리우는 하문 소백로민족무용단은 지난 기간 자기들의 공연활동을 통하여 지위를 공고히 하고있으며 다 민족극가의 모든 민족무용들을 다 포괄하고있는 제능있는 민족무용단이다.

사발썩기에 참가한 중국교배 배우들의 기량은 대단히 높으며 이 중목은 여러 교배 축전들에서 여러차례나 금상을 수여받은 독점종목이다.

로시야의 대표적인 발레단의 하나인 모스크바교전발레단과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명배우들을 가지고있는 모스크바 대극장명배우단, 국내인민들로

부터 사랑을 받고있는 와르라와 《오베레그》 음악단의 공연은 축전첫날부터 관람자들의 이목을 모으고있다.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첼로, 피아노교수활동을 벌리고있는 도이힐란드 《크로이체 콘서트》 협회 독주자인행, 프랑스 알베르 마나르명실내악단, 뿔스가 《프리마 비스타》 현악 4중주단, 핀란드음악단, 우크라이나 교배무용단, 우크라이나 3명창단, 벨 남창년극장예술단, 로시야 《이즈브르 데 불차》 민족예술단들도 자기 나라의 이름있는 예술단체들이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조국과 민족을 떠나서 인간의 참된 삶이란 있을수 없으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떠난 개인의 운명이란 있을수 없다.》

참된 삶의 봄을 안겨준 자애로운 어버이수령님의 품을 못 잊어 그리는 제일동포들의 절절한 심정은 작품마다에 어 려이 관객들은 가슴뜨거움을 금치 못하고있다. 그 가운데서도 총련의 애국정신을 세대를 이어 꽃이 이어가는 동포청년들의 루쟁을 반영한 군무 《일편단심 붉은 마음 간직합니다》는 불수록 감동적이다.

최근년간 지속되는 경제적침체로 인하여 동포들이 생활상난을 겪고있는데다가 지난 3월 일본의 도호쿠지방을 비롯한 여러 지방들을 참혹하게

충격을 겪고있는 동포들이

고조되는 평양축전 참가 열의

사이의 친선의 뉴대를 강화하고 문화적교류와 협조를 도모하는 보다 훌륭한 계기로 되고있으며 내외의 커다란 관심을 집중시키고있다. 이번 축전과 더불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을 맞는 다음해에 진행되게 될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대한 세계적인 기대와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있다.

이번 축전에 참가한 많은 예술단체들이 벌써부터 김일성동지의 100년사를 축하하는 역사적인 2012년에 축전사상 가장 성대하고 훌륭한 축전으로 진행되게 될 제 28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참가를 신청하고

있으며 다음번 축전에 내용을 특색있는 예술종목들을 높은 수준에서 준비할 열의에 넘쳐 있다.

해외동포예술인들도 제 28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보다 준비되게, 성의있게 참가하기 위한 문제들을 가지고 축전조직위원회와의 루쟁을 강화하고

있다.

해외동포예술인들도 제 28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보다 준비되게, 성의있게 참가하기 위한 문제들을 가지고 축전조직위원회와의 루쟁을 강화하고

재미조선인예술단 성원들을 만나보고

이번 축전에 참가한 해외동포예술인들을 만나기 위하여 김원공명정 평양음악대학 음악당을 찾았을 우리는 박연있게 울리는 피아노소리에 걸음을 멈추었다. 노래 《조선은 하나다》의 선율이 울려 퍼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 주신 조국통일방향을 높이 받들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전제 조선인들이 떨쳐 나설것을 힘있게 호소하고있는 피아노의 선율이 우리는 저도모르게 이끌려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민족은 하나이고 우리 조국은 하나입니다.》

알고보니 선율의 주인공은 재미조선인예술단의 한 성원으로 평양에 처음으로 온 김은정동무였다.

남조선에서 태어난 그에게 있어서 조국통일에 대한 갈망은 남다른것이었다.

자기보다 먼저 평양을 다녔던 동생에게서 조국인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번엔 함께 온 리지은동무로부터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대한 이야기 들은 다음부터 평양으로 달려가는 그의 마음은 더욱 강렬해졌다.

연세부터 오고싶었지만 이제 야은 평양에서, 하루빨리 만나 보고싶었던 조국인민들앞에서 민족의 통일지향을 담아 피아노를 누르며 《조선은 하나다》를 잘 연주하기 위해 그렇듯 혼련

에 열중하고있는것이였다. 그만이지 아니였다. 미국 땅에 처음으로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를 높이 울린 리준무단장을 비롯하여 예술단성원들모두의 가슴속에도 거대한 숙원인 조국통일에 대한 열렬한 갈망이 자립되고있었다.

《어린 나이에 조국의 해방을 위한 길에 나서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땅의 모든것을 김일성장군님의 선군령도를 받들어 더욱 빛내여나가고 있는 조국인민들의 모습에 감동됩니다.》

분별된 조국의 통일을 위해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쳐오신 대원수님의 탄생 100돐이 눈앞에 왔습니다. 더불어 강성대국승리가 눈앞에 왔습니다.》

리준무단장의 말에 화답하듯 김은정동무가 열정적으로 건반을 두드리는 피아노에서 통일 노래가 더욱 힘차게 울리고있었다.

그렇다. 축전무대에서 이들이 심장으로 터치는 통일의 노래는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이어이 실현하려는 우리 민족의 신념과 의지를 담고 4월의 하늘명을 진감시키고있다.

본사기자 려명희

친선의 정 안고 온 열정적인 독창가 로시야 와르와와 《오베레그》 음악단 단장 알로나 쑤쏘바

러한 그에게 사랑하는 노래가 또 하나 늘어났으니 그것은 조선 노래 《준마치너》였다.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처음으로 참가하게 된 그는 세계가 공인하는 인류의 태양이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호모심을 안고 축전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한세기에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신 최후의 평창을 소리높이 천성하기 위해 가장 사랑하는 전사자요들을 비롯하여 20여년의 작품들을 지금껏 헌마한 제능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 훌륭히 형성하였다. 반주악기로 진행로열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손공품을 준비하였다. 하지만 축전준비에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는것만 같았다. 사색을 이어가려는 그는 이번 축전무대에 조선노래를 형성하여 울리기로 하였다.

어떤 노래를 형성할것인가. 그대 로 노래이고 춤이였다. 이

고조되는 평양축전 참가 열의

사이의 친선의 뉴대를 강화하고 문화적교류와 협조를 도모하는 보다 훌륭한 계기로 되고있으며 내외의 커다란 관심을 집중시키고있다. 이번 축전과 더불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을 맞는 다음해에 진행되게 될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대한 세계적인 기대와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있다.

이번 축전에 참가한 많은 예술단체들이 벌써부터 김일성동지의 100년사를 축하하는 역사적인 2012년에 축전사상 가장 성대하고 훌륭한 축전으로 진행되게 될 제 28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참가를 신청하고

있으며 다음번 축전에 내용을 특색있는 예술종목들을 높은 수준에서 준비할 열의에 넘쳐 있다.

해외동포예술인들도 제 28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보다 준비되게, 성의있게 참가하기 위한 문제들을 가지고 축전조직위원회와의 루쟁을 강화하고

있다.

해외동포예술인들도 제 28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보다 준비되게, 성의있게 참가하기 위한 문제들을 가지고 축전조직위원회와의 루쟁을 강화하고

백두산기슭에 펼쳐진 축원의 꽃바다

집단체조 《장군님의 손길아래 꽃피는 향강방》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집단체조를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되며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우리 로동자정당의 정당성, 그 위대한 생활력을 내외에 널리 시위하게 됩니다.》

태양절을 맞으며 향강도에서 집단체조 《장군님의 손길아래 꽃피는 향강방》을 장식완성하여 내놓았다.

중중히 간직한 기념사진

이번 축전에 참가한 중국교배단 장모생의 가슴속에는 어버이수령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은 영광이 소중히 간직되어있었다.

만민이 칭송하는 절세의 위인을 몸가게이 모시고 공연을 진행하고 기념사진까지 남겼으니 이는 참 행운이었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에 대한 중국인민의 호모심이 얼마나 뜨거운가를 너무나 잘 알고

이와 관련하여 논변에서는 원그루버모판씨부리기와 벼모의 헛자리를 막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원그루버모판씨부리기와 벼모생육초기의 모판관리를 잘하여야 한다.

원그루버모의 씨부리기는 행정모일 때 중산잔디와 동해안북부지대에서 4월 중순경, 속성모와 영랑평모, 무피모일 때 4월 하순 전반기까지

한세기에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신 최후의 평창을 소리높이 천성하기 위해 가장 사랑하는 전사자요들을 비롯하여 20여년의 작품들을 지금껏 헌마한 제능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 훌륭히 형성하였다. 반주악기로 진행로열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손공품을 준비하였다. 하지만 축전준비에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는것만 같았다. 사색을 이어가려는 그는 이번 축전무대에 조선노래를 형성하여 울리기로 하였다.

어떤 노래를 형성할것인가. 그대 로 노래이고 춤이였다. 이

한세기에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신 최후의 평창을 소리높이 천성하기 위해 가장 사랑하는 전사자요들을 비롯하여 20여년의 작품들을 지금껏 헌마한 제능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 훌륭히 형성하였다. 반주악기로 진행로열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손공품을 준비하였다. 하지만 축전준비에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는것만 같았다. 사색을 이어가려는 그는 이번 축전무대에 조선노래를 형성하여 울리기로 하였다.

어떤 노래를 형성할것인가. 그대 로 노래이고 춤이였다. 이

한세기에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신 최후의 평창을 소리높이 천성하기 위해 가장 사랑하는 전사자요들을 비롯하여 20여년의 작품들을 지금껏 헌마한 제능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 훌륭히 형성하였다. 반주악기로 진행로열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손공품을 준비하였다. 하지만 축전준비에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는것만 같았다. 사색을 이어가려는 그는 이번 축전무대에 조선노래를 형성하여 울리기로 하였다.

어떤 노래를 형성할것인가. 그대 로 노래이고 춤이였다. 이

한세기에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신 최후의 평창을 소리높이 천성하기 위해 가장 사랑하는 전사자요들을 비롯하여 20여년의 작품들을 지금껏 헌마한 제능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 훌륭히 형성하였다. 반주악기로 진행로열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손공품을 준비하였다. 하지만 축전준비에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는것만 같았다. 사색을 이어가려는 그는 이번 축전무대에 조선노래를 형성하여 울리기로 하였다.

어떤 노래를 형성할것인가. 그대 로 노래이고 춤이였다. 이

집단체조 《장군님의 손길아래 꽃피는 향강방》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집단체조를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되며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우리 로동자정당의 정당성, 그 위대한 생활력을 내외에 널리 시위하게 됩니다.》

태양절을 맞으며 향강도에서 집단체조 《장군님의 손길아래 꽃피는 향강방》을 장식완성하여 내놓았다.

집단체조 《장군님의 손길아래 꽃피는 향강방》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집단체조를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되며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우리 로동자정당의 정당성, 그 위대한 생활력을 내외에 널리 시위하게 됩니다.》

태양절을 맞으며 향강도에서 집단체조 《장군님의 손길아래 꽃피는 향강방》을 장식완성하여 내놓았다.

집단체조 《장군님의 손길아래 꽃피는 향강방》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집단체조를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되며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우리 로동자정당의 정당성, 그 위대한 생활력을 내외에 널리 시위하게 됩니다.》

태양절을 맞으며 향강도에서 집단체조 《장군님의 손길아래 꽃피는 향강방》을 장식완성하여 내놓았다.

집단체조 《장군님의 손길아래 꽃피는 향강방》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집단체조를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되며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우리 로동자정당의 정당성, 그 위대한 생활력을 내외에 널리 시위하게 됩니다.》

태양절을 맞으며 향강도에서 집단체조 《장군님의 손길아래 꽃피는 향강방》을 장식완성하여 내놓았다.

집단체조 《장군님의 손길아래 꽃피는 향강방》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집단체조를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되며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우리 로동자정당의 정당성, 그 위대한 생활력을 내외에 널리 시위하게 됩니다.》

태양절을 맞으며 향강도에서 집단체조 《장군님의 손길아래 꽃피는 향강방》을 장식완성하여 내놓았다.

집단체조 《장군님의 손길아래 꽃피는 향강방》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집단체조를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되며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우리 로동자정당의 정당성, 그 위대한 생활력을 내외에 널리 시위하게 됩니다.》

태양절을 맞으며 향강도에서 집단체조 《장군님의 손길아래 꽃피는 향강방》을 장식완성하여 내놓았다.

집단체조 《장군님의 손길아래 꽃피는 향강방》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집단체조를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되며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우리 로동자정당의 정당성, 그 위대한 생활력을 내외에 널리 시위하게 됩니다.》

태양절을 맞으며 향강도에서 집단체조 《장군님의 손길아래 꽃피는 향강방》을 장식완성하여 내놓았다.

집단체조 《장군님의 손길아래 꽃피는 향강방》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집단체조를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되며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우리 로동자정당의 정당성, 그 위대한 생활력을 내외에 널리 시위하게 됩니다.》

태양절을 맞으며 향강도에서 집단체조 《장군님의 손길아래 꽃피는 향강방》을 장식완성하여 내놓았다.

집단체조 《장군님의 손길아래 꽃피는 향강방》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집단체조를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되며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우리 로동자정당의 정당성, 그 위대한 생활력을 내외에 널리 시위하게 됩니다.》

태양절을 맞으며 향강도에서 집단체조 《장군님의 손길아래 꽃피는 향강방》을 장식완성하여 내놓았다.

집단체조 《장군님의 손길아래 꽃피는 향강방》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집단체조를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되며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우리 로동자정당의 정당성, 그 위대한 생활력을 내외에 널리 시위하게 됩니다.》

태양절을 맞으며 향강도에서 집단체조 《장군님의 손길아래 꽃피는 향강방》을 장식완성하여 내놓았다.

집단체조 《장군님의 손길아래 꽃피는 향강방》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집단체조를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되며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우리 로동자정당의 정당성, 그 위대한 생활력을 내외에 널리 시위하게 됩니다.》

태양절을 맞으며 향강도에서 집단체조 《장군님의 손길아래 꽃피는 향강방》을 장식완성하여 내놓았다.

집단체조 《장군님의 손길아래 꽃피는 향강방》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집단체조를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되며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우리 로동자정당의 정당성, 그 위대한 생활력을 내외에 널리 시위하게 됩니다.》

태양절을 맞으며 향강도에서 집단체조 《장군님의 손길아래 꽃피는 향강방》을 장식완성하여 내놓았다.

집단체조 《장군님의 손길아래 꽃피는 향강방》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집단체조를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되며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우리 로동자정당의 정당성, 그 위대한 생활력을 내외에 널리 시위하게 됩니다.》

태양절을 맞으며 향강도에서 집단체조 《장군님의 손길아래 꽃피는 향강방》을 장식완성하여 내놓았다.

집단체조 《장군님의 손길아래 꽃피는 향강방》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집단체조를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되며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우리 로동자정당의 정당성, 그 위대한 생활력을 내외에 널리 시위하게 됩니다.》

태양절을 맞으며 향강도에서 집단체조 《장군님의 손길아래 꽃피는 향강방》을 장식완성하여 내놓았다.

집단체조 《장군님의 손길아래 꽃피는 향강방》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집단체조를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되며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우리 로동자정당의 정당성, 그 위대한 생활력을 내외에 널리 시위하게 됩니다.》

태양절을 맞으며 향강도에서 집단체조 《장군님의 손길아래 꽃피는 향강방》을 장식완성하여 내놓았다.

집단체조 《장군님의 손길아래 꽃피는 향강방》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집단체조를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되며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우리 로동자정당의 정당성, 그 위대한 생활력을 내외에 널리 시위하게 됩니다.》

태양절을 맞으며 향강도에서 집단체조 《장군님의 손길아래 꽃피는 향강방》을 장식완성하여 내놓았다.

집단체조 《장군님의 손길아래 꽃피는 향강방》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집단체조를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되며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우리 로동자정당의 정당성, 그 위대한 생활력을 내외에 널리 시위하게 됩니다.》

태양절을 맞으며 향강도에서 집단체조 《장군님의 손길아래 꽃피는 향강방》을 장식완성하여 내놓았다.

집단체조 《장군님의 손길아래 꽃피는 향강방》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집단체조를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되며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우리 로동자정당의 정당성, 그 위대한 생활력을 내외에 널리 시위하게 됩니다.》

태양절을 맞으며 향강도에서 집단체조 《장군님의 손길아래 꽃피는 향강방》을 장식완성하여 내놓았다.

집단체조 《장군님의 손길아래 꽃피는 향강방》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집단체조를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되며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우리 로동자정당의 정당성, 그 위대한 생활력을 내외에 널리 시위하게 됩니다.》

태양절을 맞으며 향강도에서 집단체조 《장군님의 손길아래 꽃피는 향강방》을 장식완성하여 내놓았다.

집단체조 《장군님의 손길아래 꽃피는 향강방》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집단체조를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되며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우리 로동자정당의 정당성, 그 위대한 생활력을 내외에 널리 시위하게 됩니다.》

태양절을 맞으며 향강도에서 집단체조 《장군님의 손길아래 꽃피는 향강방》을 장식완성하여 내놓았다.

집단체조 《장군님의 손길아래 꽃피는 향강방》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집단체조를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되며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우리 로동자정당의 정당성, 그 위대한 생활력을 내외에 널리 시위하게 됩니다.》

태양절을 맞으며 향강도에서 집단체조 《장군님의 손길아래 꽃피는 향강방》을 장식완성하여 내놓았다.

집단체조 《장군님의 손길아래 꽃피는 향강방》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집단체조를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되며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우리 로동자정당의 정당성, 그 위대한 생활력을 내외에 널리 시위하게 됩니다.》

태양절을 맞으며 향강도에서 집단체조 《장군님의 손길아래 꽃피는 향강방》을 장식완성하여 내놓았다.

집단체조 《장군님의 손길아래 꽃피는 향강방》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집단체조를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되며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우리 로동자정당의 정당성, 그 위대한 생활력을 내외에 널리 시위하게 됩니다.》

태양절을 맞으며 향강도에서 집단체조 《장군님의 손길아래 꽃피는 향강방》을 장식완성하여 내놓았다.

집단체조 《장군님의 손길아래 꽃피는 향강방》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집단체조를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되며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우리 로동자정당의 정당성, 그 위대한 생활력을 내외에 널리 시위하게 됩니다.》

태양절을 맞으며 향강도에서 집단체조 《장군님의 손길아래 꽃피는 향강방》을 장식완성하여 내놓았다.

집단체조 《장군님의 손길아래 꽃피는 향강방》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집단체조를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되며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우리 로동자정당의 정당성, 그 위대한 생활력을 내외에 널리 시위하게 됩니다.》

태양절을 맞으며 향강도에서 집단체조 《장군님의 손길아래 꽃피는 향강방》을 장식완성하여 내놓았다.

집단체조 《장군님의 손길아래 꽃피는 향강방》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집단체조를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되며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우리 로동자정당의 정당성, 그 위대한 생활력을 내외에 널리 시위하게 됩니다.》

태양절을 맞으며 향강도에서 집단체조 《장군님의 손길아래 꽃피는 향강방》을 장식완성하여 내놓았다.

집단체조 《장군님의 손길아래 꽃피는 향강방》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집단체조를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되며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우리 로동자정당의 정당성, 그 위대한 생활력을 내외에 널리 시위하게 됩니다.》

태양절을 맞으며 향강도에서 집단체조 《장군님의 손길아래 꽃피는 향강방》을 장식완성하여 내놓았다.

집단체조 《장군님의 손길아래 꽃피는 향강방》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집단체조를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되며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우리 로동자정당의 정당성, 그 위대한 생활력을 내외에 널리 시위하게 됩니다.》

태양절을 맞으며 향강도에서 집단체조 《장군님의 손길아래 꽃피는 향강방》을 장식완성하여 내놓았다.

세계 자주화 위업에 쌓아올린 신 위대한 업적

뜻 깊은 태양절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신문 특집

태양절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신문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을 모시고 편집하였다.

로씨야신문 《나호드건설기 라보치》 5일부는 《김일성, 영원한 주석》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게재하였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정치사상 강국, 군사강국, 과학기술강국으로 위용 떨치고있는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는 바로 김일성주석이다. 주석께서는 항일대전의 나날 독창적인 인민정권건설로선을 제시하시고 유격근거지들에 인민혁명정부를 수립하시였다. 1948년 9월 9일에는 동방에서의 첫 인민민주주의 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주석께서는 주체사상의 기치 밑에 조선혁명을 이끄시면서 국가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새 정권의 형태도, 전군조선과 민주개혁도 조선식으로 규정하고 실시하시였다.

그의 사상과 위업은 드림 없이 이어지고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 선군사상

을 새로운 시대적요구에 맞게 심화발전시키시고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신다.

그이께서는 주석의 넘원이며 리상이었던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숭대한 목표를 제시하시고 그의 실현을 위해 불면불휴의 노력을 바치셨다.

로씨야신문 《우나다스 나세오날》 3월 31일부는 글에서 김일성주석을 조선인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고있다고 하면서 건당, 건국위업에 쌓아올린 질세대의 불멸의 업적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신문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수행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신데 대하여 생생히 전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김정일각하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조선에서는 최근년간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일떠서고 대자연계조사업들이 힘있게 벌어지며 최첨단기술에 의한 생산적양양의 불길은 온 나라에 타버치는 등 강성대국건설위업의 실현을 눈앞에 두는 장엄한 현실이 펼쳐지게 되었다. 세계에 알만 안되는 인공지구위성제작으로, 발사국으로, 핵보유국의 조선의

위업은 만방에 떨쳐지고있다.

김정일동지께서 의욕이 울퉁불퉁하게 실현되어가고있는 조선의 현실속에서 주석의 혁명력사는 끊임없이 흐르고있다.

로씨야신문 《프롤레타르》 6일부는 《김일성주석 탄생 99주》이라는 제목의 글에

인터넷에 글 게재

태양절에 즈음하여 지역구와 배후단체에 인터넷홈페이지에 기념글을 올렸다.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회 국제연합은 11일 인터넷홈페이지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진을 모시고 《자애로운 어버이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편집하였다.

1912년 4월 15일 만경대의 초가집에서 탄생하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서 나라의 독립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셨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언제나 인민들속에서 계시면서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로선과 정책에 반영하고있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은 그 어디에 가있건 언제나 인민들부터 찾아보아야

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간고한 항일무장투쟁과 해방후 새 조국건설, 조국해방전쟁과 전후복구건설, 사회주의 건설을 현명하게 이끄셨으며 우리 나라에서 온갖 인민의 적시책들이 실시되도록 하신데 대하여 사실자료를 들어 려거하였다.

담화 발표

태양절에 즈음하여 아랍번호 사용법 총서기 이브라힘 이샤라리가 10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담화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한세대에도 주체주의를 라송하고 조선상을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면시킴으로써 위대한 위업을 창조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김일성주석은 발전도상나라

들을 로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의 행복이 자 곧 자신의 기쁨과 행복으로 간주하고계셨다.

정녕 김일성동지는 한 나라의 수령이시기 전에 전체 인민의 어버이이셨다.

배후조선선문화협회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상을 모시고 《4월 15일을 맞는 평양》이라는 제목으로 김일성주석의 탄생일인 태양절을 맞이하는 조선의 평양 곳곳에 대하여 한 수도시민들의 끝없는 흥분의 마음을 담은 노래마다, 춤마다가 펼쳐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에 대해 소개하는 글을 실었다.

홈페이지는 우리 나라 학생소년들의 예술공연장면을 함께 편집하였다.

다문화 발표

태양절에 즈음하여 이탈리아 평화당과 사회주의운동 총비서 프라데르 가브리엘레가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환경생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셨다. 주석께서는 조선에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를 세우시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인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생애의 마지막 혁명적행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2012년은 조선인민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김일성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침략과 도진, 제재와 봉쇄, 압력을 짓부시며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결연히 수호하고 빛내어오셨는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조선인민이 새해공동수확에 제시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을 최상성대의 명절로 뜻깊게 맞이하리라고 확신한다.

☺ ☺

태양절에 즈음하여 이탈리아 평화당과 사회주의운동 총비서 프라데르 가브리엘레가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환경생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셨다. 주석께서는 조선에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를 세우시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인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생애의 마지막 혁명적행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2012년은 조선인민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정책을 세우도 거기에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가 철저히 반영되도록 하시고 하나의 공명, 하나의 도시를 건설하여도 인민대중의 리익과 편익이 원만

기념블렌즈 발표

태양절에 즈음하여 민주공화, 에리트, 쿠웨이트단체가 10일과 11일 블렌즈를 발행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 기념 민주공화준비위원회는 블렌즈에 경애하는 수령님의 태양상을 모시고 《김일성주석의 탄생 99주에 즈음하여》라는 표제 밑에 그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소개하는 글을 실었다.

에리트조선선문화협회는 블렌즈에 다음과 같은 글을 편집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자주시대 인류가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뜨거운 열정을 지니시고 헌신이 승고한 인민정치를 펼치시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금수산기념궁전에 생건의 모습 그대로 계신데 조선인민은 김일성주석의 탄생일인 4월 15일을 태양절로 제정하고 그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모시고있다. 태양이 영원 하듯 김일성주석께서는 인류와

히 보장되도록 하시였다.

조선인민이 김일성주석을 민족의 어버이, 영원한 수령으로 깊이 모셔가고있는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다문화 발표

태양절에 즈음하여 민주공화, 에리트, 쿠웨이트단체가 10일과 11일 블렌즈를 발행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 기념 민주공화준비위원회는 블렌즈에 경애하는 수령님의 태양상을 모시고 《김일성주석의 탄생 99주에 즈음하여》라는 표제 밑에 그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소개하는 글을 실었다.

에리트조선선문화협회는 블렌즈에 다음과 같은 글을 편집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자주시대 인류가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뜨거운 열정을 지니시고 헌신이 승고한 인민정치를 펼치시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금수산기념궁전에 생건의 모습 그대로 계신데 조선인민은 김일성주석의 탄생일인 4월 15일을 태양절로 제정하고 그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모시고있다. 태양이 영원 하듯 김일성주석께서는 인류와

령토강탈에 환장한자의 호전적망발

최근 일본외상 마쓰모토가 일본의 교과서검정제도에 대해 변명하는 자리에서 독도가 《일본고유의 령토》라는 일본정부의 립장은 일관하고 격렬하였다. 마쓰모토의 떠벌이는 그보다 앞서 일본당국이 《독도명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의 중학교교과서검정결과를 발표하는데 뒤여 나온것이다. 지어 그는 일본국회 참의원회의에서 발언하면서 독도가 외부의 《미사일공격》을 받을 경우 그것은 《일본에 대한 공격으로 된다》는 호전적인 망발까지 폈다. 이것은 일본군국주의세력이 독도를 《일본령토》로 기정사실화하고 그것을 《보호》한다는 구실밑에 어느때든 제침의 포성을 울리려는 범죄적도를 공공연히 드러내놓은것이다.

국제사회는 일본의 파렴치한 령토강탈행위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있다.

독도가 우리 나라의 신성한 령토라는것은 역사적사실자료들과 지리적 및 법률적근거에 기초하여 이미 명백히 확증되었다. 독도가 유구한 조선역사와 더불어 우리 인민에 의해 다스려지고 조선민족에게 복무해온 우리 나라 령토의 귀중한 한 부분이라는것을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없다.

나라들이사의 관계에서 령토문제만큼 예민하고 심각한 문제는 없다. 마쓰모토는 외교관으로서 황당무계한 《독도명유권》주장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일본은 얼마전에 있는 대대적으로 막대한 인적, 물적피해를 입었다. 일본에서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내는 재난의 후유증은 가셔지지 않고있다.

현재 상황에서 일본당국자들은 다른데 헛눈을 팔게 하지 못된다.

이런 속에서도 일본당국자들이 《독도명유권》을 주장해나서고있는것을 보면 그들의 령토강탈야망이 어느 지점에 이르렀는지 하는것을 짐작할수 있게 한다.

일본반동들의 독도강탈야망을 단순히 역사적식부족이나 정치도덕적비열성에 의한것으로만 볼수 없다. 그것은 《대동야공명권》의 옛꿈을 버리지 않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호전적인 채침기에서 출발한것이다.

우리 나라를 타고앉지 않고서는 아시아재침

미국의 음모책동 단죄

이란대통령 마흐무드 아흐메디네자드가 최근 한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미국의 음모책동을 신랄히 단죄하였다.

그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팔레스타인령토에 2개의 정부를 수립하려고 꾀하고있는 데 대해 폭로하고 이것은 이스

《인권보고서》를 배격

브라질의우성이 최근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의 《인권보고서》를 배격하였다.

성명은 미행정부 가 해마다 《보고서》에서 다른 나라들의 인권상황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반면에 미국자체의 인권침해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있다고 비판하였다.

미국은 다른 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해 리카르자르콩 시비할 권리가 없다고 성명을 강조하였다.

헝가리우성 대변인도 최근 미국의 《인권보고서》를 배격하였다.

그는 미국의 《인권보고서》가 헝가리의 실정에 맞지 않는 정보들에 근거한것으로서 매우

정착촌확장책동 규탄

요르단의무장 내세트 자우트라가 6일 한 의회석상에서 이스라엘의 유대인정착촌확장책동을 규탄하였다. 그는 팔레스타인령토에서 감행되는 이스라엘의 정착촌확장책동이 지역의 평화를 위한 국제적노력을 파괴하는 범죄적이라고 도발하였다. 또한 프랑스의우성 대변인도 4일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의 유대인정착촌확장책동을 신랄

국제레로에 관한 유엔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나라 대표 연설

11일 국제레로에 관한 유엔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나라 대표가 연설하였다.

그는 국제사회의 반레로노력에도 불구하고 레로행위는 계속되어서 성행하고있다고 하면서 《반레로전》의 미명하에 주권국가들에 대한 군사적침략과 간섭, 국도의 인권을침해들이 정당화하려고 목인되고있는 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세계각지 특히 중동지역에서 미국이 벌이고있는 주권국가에 대한 무력침공과 인권침해행위를 국가레로행위, 인권유린행위의 대표적실례라고 하면서 정부지침을 목적으로 하고있다고 하여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미국의 악순환을 몰아오이고는 이러한 현상들을 시급히 근절하지 않으면서 반

신행동감외해

베네수엘라에서 A(H1N1)형유행감기가 계속 퍼져 피해가 확대되고있다. 6일 이 나라 보건당국은 올해에 들어와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등록된 신행동감외환자가 923명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병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있다.

또한 피지에서 신행동감외환자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8일 이 나라의 한 신문은 신행동감에 걸려 앓고있던 30살 남십이 사망하였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병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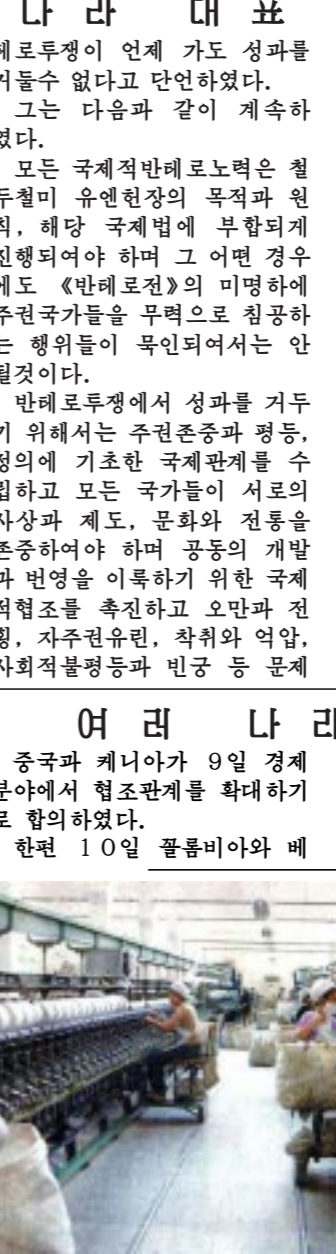
여러 나라들 협조

중국과 케냐가 9일 경제네수엘라에서 하부구조 등 분야에서 협조관계를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10일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에

베네수엘라에 하부구조 등 분야에서 협조관계를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중국 의 방직공장



편지위원회

생산업체들을 결코 늘이지며 무역분쟁에 열을 올리는 리유는 단순하다. 서로 상대방의 항공시장을 더 많이 차지하고 더 많은 리용을 얻는것이다. 자본주의발전은 시장의 확대를 전제조건으로 한다. 그런것만큼 누가 시장을 더 빨리, 더 크게 확대하는가 하는것은 치열한 생존경쟁의 승자를 결정하는 판적경쟁으로 된다. 최근년간 자본주의경쟁의 《결연전》이라고 부러하던 미국에서 금융, 경제위기가 터짐으로써 유럽동맹의 경제전반이 크게 위축되면서 세계경제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는 형편에서 더욱 그렇다. 경제위기가 커지면 수입은 서방의 항공운수분야에서 시장경쟁은 보다 심하게 나타나고있다. 지금 서방의 항공업체들은 시장경쟁을 위해 상대방의 리해관계와는 관계없이 자기의 리익만을 추구하는 일방적인 보호무역주의정책에 극성스레 매달리고있다. 미국공공의 신행동감외환자수준과 관련한 공개입찰과정은 그러한 예를 들어다보기에 충분하다.

지금유가가 수백엔트US\$에 달하는 막대한 액수를 결코 벌어들일수 없게 된 입찰경쟁에서 가장 유리한 대상으로 주목되었는 유럽의 《에어바스》회사는, 대공공의 신행동감외환자수준과 관련한 공개입찰과정은 그러한 예를 들어다보기에 충분하다.

지금유가가 수백엔트US\$에 달하는 막대한 액수를 결코 벌어들일수 없게 된 입찰경쟁에서 가장 유리한 대상으로 주목되었는 유럽의 《에어바스》회사는, 대공공의 신행동감외환자수준과 관련한 공개입찰과정은 그러한 예를 들어다보기에 충분하다.

유가가 서로 상대방의 비행기

국제적 관심은 재생에너지를 불러온다

최근 아랍주장국면에서 국제재생에너지를 위한 움직임이 일어났다. 여기에 150개 나라에서 온 많은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에서 설립된것은 이미 아니다. 그러나 이 기구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상당히 높다. 설립초기에 75개 나라가 이 기구에 가입하고 이번 열린 총회에 많은 나라들이 참가한 사실 이것을 입증해준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은 것은 이 기구의 출현이 현시기 인류가 직면한 도전과 정세의 여러 측면을 반영하고있는것과 중요하게

판단한다.

인간의 생존과 발전에 중요한 위험을 조성하고있는 지구온난화를 초래한 주되는 요인이 온실효과가스의 대량적인 방출에 있다는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다.

산업혁명때부터 리용되어오면서 오늘에 와서는 어느 나라에서나 공업의 성장으로 되고있는 원유나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는 연소과정에서 온실효과를 방출하고있다.

인민 인구가 경제발전에만 신경을 쓰면서 온실효과가스를 방출중대에 낮추지 않는다면 이미전에 증빙진단을 받은 지구에 치명적인 후과가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로부터 국제적으로 온실효과가스의 방출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특히 화석연료에 비해 온실효과가스를 전혀 방출하지 않는 풍력, 태양열과 같이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매력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의 출현은 그 명칭에서 뚜렷이 알수 있는것처럼 세계적으로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개발, 리용을 확대함으로써 지구온난화를 하루빨리 방지하고 삶의 터전을 다져나가기 위한 사람들의 지향과 념원의 반영이다.

다른 측면에서 볼 때 국제제

고는 발전하지 않다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습정망이 없고 방사성물질에 의한 공기와 토양, 강, 농작물, 바다의 오염이 계속되고있고 세계적인 자연재해가 계속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 여러 나라 전문가들과 여론들속에서 논의가 분분하다.

국제사회에서는 일본의 원자력발전소사고를 두 번 새로 체르노빌의 그림자라고 하고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열린 국제재생에너지기구의 총회에서 각국의 대표들은 재생가능한 에너지개발, 리용에 상당한 힘을 넣을데 대하여 강하게 주장하였다.

또한대표는 일본의 원자력발전소사고는 불행한 일이지만 다음세대에 에너지를 물려주어야 한다는 확신을 표시하였다.

스웨덴대표도 일본의 원자력발전소사고를 두 번 새로 체르노빌의 그림자라고 하고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열린 국제재생에너지기구의 총회에서 각국의 대표들은 재생가능한 에너지개발, 리용에 상당한 힘을 넣을데 대하여 강하게 주장하였다.

또한대표는 일본의 원자력발전소사고는 불행한 일이지만 다음세대에 에너지를 물려주어야 한다는 확신을 표시하였다.

스웨덴대표도 일본의 원자력발전소사고를 두 번 새로 체르노빌의 그림자라고 하고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열린 국제재생에너지기구의 총회에서 각국의 대표들은 재생가능한 에너지개발, 리용에 상당한 힘을 넣을데 대하여 강하게 주장하였다.

또한대표는 일본의 원자력발전소사고는 불행한 일이지만 다음세대에 에너지를 물려주어야 한다는 확신을 표시하였다.

스웨덴대표도 일본의 원자력발전소사고를 두 번 새로 체르노빌의 그림자라고 하고있다.

시장쟁탈을 위한 치열한 공방전

그렇다고 하여 유럽동맹이 단독해탈도, 미국이 실망해할것도 없다고 서방언론들은 전하고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리용을 얻는것이다. 자본주의발전은 시장의 확대를 전제조건으로 한다. 그런것만큼 누가 시장을 더 빨리, 더 크게 확대하는가 하는것은 치열한 생존경쟁의 승자를 결정하는 판적경쟁으로 된다. 최근년간 자본주의경쟁의 《결연전》이라고 부러하던 미국에서 금융, 경제위기가 터짐으로써 유럽동맹의 경제전반이 크게 위축되면서 세계경제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는 형편에서 더욱 그렇다. 경제위기가 커지면 수입은 서방의 항공운수분야에서 시장경쟁은 보다 심하게 나타나고있다. 지금 서방의 항공업체들은 시장경쟁을 위해 상대방의 리해관계와는 관계없이 자기의 리익만을 추구하는 일방적인 보호무역주의정책에 극성스레 매달리고있다. 미국공공의 신행동감외환자수준과 관련한 공개입찰과정은 그러한 예를 들어다보기에 충분하다.

지금유가가 수백엔트US\$에 달하는 막대한 액수를 결코 벌어들일수 없게 된 입찰경쟁에서 가장 유리한 대상으로 주목되었는 유럽의 《에어바스》회사는, 대공공의 신행동감외환자수준과 관련한 공개입찰과정은 그러한 예를 들어다보기에 충분하다.

유가가 서로 상대방의 비행기

시장쟁탈을 위한 치열한 공방전

그렇다고 하여 유럽동맹이 단독해탈도, 미국이 실망해할것도 없다고 서방언론들은 전하고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리용을 얻는것이다. 자본주의발전은 시장의 확대를 전제조건으로 한다. 그런것만큼 누가 시장을 더 빨리, 더 크게 확대하는가 하는것은 치열한 생존경쟁의 승자를 결정하는 판적경쟁으로 된다. 최근년간 자본주의경쟁의 《결연전》이라고 부러하던 미국에서 금융, 경제위기가 터짐으로써 유럽동맹의 경제전반이 크게 위축되면서 세계경제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는 형편에서 더욱 그렇다. 경제위기가 커지면 수입은 서방의 항공운수분야에서 시장경쟁은 보다 심하게 나타나고있다. 지금 서방의 항공업체들은 시장경쟁을 위해 상대방의 리해관계와는 관계없이 자기의 리익만을 추구하는 일방적인 보호무역주의정책에 극성스레 매달리고있다. 미국공공의 신행동감외환자수준과 관련한 공개입찰과정은 그러한 예를 들어다보기에 충분하다.

지금유가가 수백엔트US\$에 달하는 막대한 액수를 결코 벌어들일수 없게 된 입찰경쟁에서 가장 유리한 대상으로 주목되었는 유럽의 《에어바스》회사는, 대공공의 신행동감외환자수준과 관련한 공개입찰과정은 그러한 예를 들어다보기에 충분하다.

유가가 서로 상대방의 비행기

시장쟁탈을 위한 치열한 공방전

그렇다고 하여 유럽동맹이 단독해탈도, 미국이 실망해할것도 없다고 서방언론들은 전하고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리용을 얻는것이다. 자본주의발전은 시장의 확대를 전제조건으로 한다. 그런것만큼 누가 시장을 더 빨리, 더 크게 확대하는가 하는것은 치열한 생존경쟁의 승자를 결정하는 판적경쟁으로 된다. 최근년간 자본주의경쟁의 《결연전》이라고 부러하던 미국에서 금융, 경제위기가 터짐으로써 유럽동맹의 경제전반이 크게 위축되면서 세계경제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는 형편에서 더욱 그렇다. 경제위기가 커지면 수입은 서방의 항공운수분야에서 시장경쟁은 보다 심하게 나타나고있다. 지금 서방의 항공업체들은 시장경쟁을 위해 상대방의 리해관계와는 관계없이 자기의 리익만을 추구하는 일방적인 보호무역주의정책에 극성스레 매달리고있다. 미국공공의 신행동감외환자수준과 관련한 공개입찰과정은 그러한 예를 들어다보기에 충분하다.

지금유가가 수백엔트US\$에 달하는 막대한 액수를 결코 벌어들일수 없게 된 입찰경쟁에서 가장 유리한 대상으로 주목되었는 유럽의 《에어바스》회사는, 대공공의 신행동감외환자수준과 관련한 공개입찰과정은 그러한 예를 들어다보기에 충분하다.

유가가 서로 상대방의 비행기

시장쟁탈을 위한 치열한 공방전

그렇다고 하여 유럽동맹이 단독해탈도, 미국이 실망해할것도 없다고 서방언론들은 전하고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리용을 얻는것이다. 자본주의발전은 시장의 확대를 전제조건으로 한다. 그런것만큼 누가 시장을 더 빨리, 더 크게 확대하는가 하는것은 치열한 생존경쟁의 승자를 결정하는 판적경쟁으로 된다. 최근년간 자본주의경쟁의 《결연전》이라고 부러하던 미국에서 금융, 경제위기가 터짐으로써 유럽동맹의 경제전반이 크게 위축되면서 세계경제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는 형편에서 더욱 그렇다. 경제위기가 커지면 수입은 서방의 항공운수분야에서 시장경쟁은 보다 심하게 나타나고있다. 지금 서방의 항공업체들은 시장경쟁을 위해 상대방의 리해관계와는 관계없이 자기의 리익만을 추구하는 일방적인 보호무역주의정책에 극성스레 매달리고있다. 미국공공의 신행동감외환자수준과 관련한 공개입찰과정은 그러한 예를 들어다보기에 충분하다.

지금유가가 수백엔트US\$에 달하는 막대한 액수를 결코 벌어들일수 없게 된 입찰경쟁에서 가장 유리한 대상으로 주목되었는 유럽의 《에어바스》회사는, 대공공의 신행동감외환자수준과 관련한 공개입찰과정은 그러한 예를 들어다보기에 충분하다.

유가가 서로 상대방의 비행기